

올 해 1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이 여전히 많다. 판로를 찾지 못하는 중소기업들, 생활을 유지하기조차 벅찬 영세상인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 대기업 역시 장기적 설비투자에 주춤하고 신기술 개발에 고삐를 늦추는 게 현실이다.

과거의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에 주로 의지하는 경제정책에서 이제는 기술경영, 인재경영 등 무형자산이 중시되는 지식경제 속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환기해야 한다. 더 이상 자본과 인력의 투입에만 의존하는 예전의 방식으로는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 더욱이 투입요소의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제 국가적 당면과제는 바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아름다운 변신이 필요한 때이다. 어쩌면 우리는 지난 97년 경제 위기와 2004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미 그 혁신의 중심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많은 기업들이 외형을 키우는 것에서 물러나 작지만 작은 기업으로의 탈바꿈하여 세계적인 글로벌 제품을 만드는 '뽕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이제는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필요한 기술을 적시에 가장 먼저 획득하여 제품화하느냐가 기업의 기술경쟁력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을 시장에서 먼저 인식하게 된다.

우리의 미래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혁신형 중소기업, 즉 벤처기업에 있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전환점이 되는 주요 혁신은 도전의식이 강하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유연한 벤처기업 중심으로 일어났고 또한 신규 고용창출의 역시 대부분 혁신형 중소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벤처정책이 정부가 중앙 집중 하에 직접 지원하여 벤처 스스로 기술혁신과 경영실적을 쌓기보다는 코스닥 등록을 통한 외형키우기나 자본이득 추구에 치중하여 자칫 부실한 체력을 가진 벤처를 양산한 실수를 이면 '신 벤처정책'에서는 반드시 만회를 해야겠다. 이제는 기술력, 자본구조, 경영자 마인드 등 옥석을 가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된 벤처정책을 수행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정부 의지에 부응하여 우리 벤처인들도 초심으로 돌아가 벤처정신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 시절 벤처열풍에 휩쓸려 대기업을 비판하고 나섰으면서도 스스로 재벌의 행태를 따라하지 않았는지, 연구개발보다는 머니게임에 더 집중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이런 반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히 내부혁신에 주력한다면 기회는 자연스럽게 벤처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정부 역시 벤처기업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지원정책의 차별화된 수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차별화된 '신 벤처정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의 지역혁신주체 중심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아직도 벤처업계에 희망을 갖고 있다. 우리 곁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 시장이 경쟁자로 있고, 대기업들은 가질 수 없는 벤처기업 특유의 모험성과 신속성을 무기로 사업을 벌여나간다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벤처기업들은 사업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의 대기업, 중소·벤처간 기술이전 교류가 활성화되고, 기업경쟁력 활성화방안으로서의 M&A에 대한 수요공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국내에서 국제 비즈니스 간, 대기업에서 벤처기업 간, 수도권에서 지방 간 균형발전이 가능해지고 벤처업계의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아무쪼록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간의 상생전략이 제대로 발휘되어 혁신경제주체로서의 바람직한 벤처생태계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